

I. 서론

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환영보다는 오해와 모함과 고난을 받았다.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억울해하기보다는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믿는 사명만 생각했다.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.

II. 본론

- * 가이사라 형제들은 나손을 중심으로 바울의 여정에 동행해 주었다.(15-16절) - 숙소제공
- *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환영해 주었지만 사도들은 없었다.(17-18절) - 땅 끝 선교?
- * 바울은 선교 상황을 보고했고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.(19-20상) - 바울의 겸손

1. 오해와 상처를 참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도 바울(20-26절)

1)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좋은데 바울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한다.(20하-21절)

* 율법에 열심이 있는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바울을 오해한다는 것이다. 바울이 모세를 저버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은 다 오해이고 사실과 다른 것이다.

- * 장로들은 이런 말을 바울에게 하면 안 된다.
- * 오히려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줬어야 했다.

2)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을 한다.(22-26절)

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양 세 마리와 많은 곡식이 들어가는데(민6:13-21절)

바울이 네 사람을 위하여 그 비용을 대고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다. 바울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장로들의 부탁을 아무 말 없이 다 수행해 준다.

*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성숙함과 오직 복음만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유연한 모습(고전 9:18-20)을 배워야 한다.

2. 바울을 모함하고 폭행하는 에베소의 유대인들(27-36절)

아시아(에베소)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선동하여 죽이려고 한다.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당했고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, 하나님께서는 로마군대의 천부장을 보내서 보호해 주셨다.

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(사53:7) 변명도 항거도 없이 끌려간다. 이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다.(고전 9:24-26)

3. 어려움 가운데도 로마군대 영내 층대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(36-40절)

III. 결론

암송

이번 주 외울 말씀

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
자 함이라(고전 9:19)

통독

이번 주 통독 말씀

8/31(월)	9/1(화)	9/2(수)	9/3(목)	9/4(금)	9/5(토)
단 1-4장	단 5-8장	단 9-12장	호 1-4장	호 5-8장	호 9-12장

QT

이번 주 QT 말씀

8/31(월)	9/1(화)	9/2(수)	9/3(목)	9/4(금)	9/5(토)	9/6(주일)
롬 16:17-27	렘 26:1-15	렘 26:16-24	렘 27:1-11	렘 27:12-22	렘 28:1-17	렘 29:1-14

나눔

목장 나눔 문제

1.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.
2.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문안했을 때 장로들이 했던 말에 대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장로들이 했던 말들이 무엇인가 말하고 바울이 왜 마음이 아팠을까 말해 보세요.
3.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.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(고전 9:18-22절)
4.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도는 오해받고 모함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? 실례를 들어 나누어 보세요.
5. 우리 말 속담에 “**향나무는 자신을 찌는 도끼에도 향을 물린다**” 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속담을 오늘 성숙에 대한 말씀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.
6. 바울은 오해받고 모함 받고 체포되어 맞으면서도 묵묵히 정해진 길을 갔습니다.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(고전 9:24-26절)